광주, 5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전국서 가장 큰폭 상승

94.1…전월 대비 23.6p↑ 전국 89.6 비수도권 86.4

광주의 5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전월대 비 23.6p 상승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

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설 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국의 5월 주택사업경 기전망지수는 전월대비 4.1p 상승한 89.6이다. 수도권에서 큰 폭(20.2p)으로 상승해 104.4로 전망됐고, 비수도권은 0.6p 상승해 86.4로 전망

이 중 광주는 94.1로 전월대비 23.6p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. 이는 전년 동월과 대비해서는 무려 35.8p 상승한 것이다.

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주택사업자의 주택 사업계획 및 정책당국의 주택공급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, 주택공급 환경에 대한 전망 예측의 용이성 제고를 위해 조사하고

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난 달 1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했다.

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이 기준치(100.0)를 크게 상회(97.6→116.6)하며 수도권 회복세를 견인했다. 수도권은 지수가 작년 10월 (107.4) 이후 7개월 만에 기준치를 상회했는데 기준금리 동결과 대출금리 3%대 진입, 실수요 자 중심 매수세 확산이 지수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.

비수도권은 0.6p 상승한 86.4로 전망됐는데, 광주는 23.6p(70.5→94.1)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으나, 경북은 △22.4p(91.6→69.2)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. 광역시는 4.6p 상승한 90.9로 전망됐으나, 도지역은 2.4p 하락한 83.1 로 전망됐다.

광역시는 광주 23.6p(70.5→94.1), 세종 18.7p(100.0→118.7), 대구 6.1p(77.2→ 83.3), 부산 4.5p(81.8→86.3) 순으로 상승했 고, 울산 13.4p(100.0→86.6), 대전 11.8p (88.2→76.4) 순으로 하락했다. 도지역은 전북 9.8p(81.8→91.6), 경남 5.0p(86.6→91.6), 제 주 2.1p(81.2→83.3) 순으로 상승했고, 충북과 전남은 전월과 동일하며, 경북 22.4p(91.6→ 69.2), 강원 13.3p(83.3→70.0), 충남 0.5p (92.8→92.3) 순으로 하락했다.

비수도권 중 광역시 지역 상승세에 따라 전 반적으로는 2024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

주산연 관계자는 "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세제 ·금융상의 보완조치와 더불어, 특히 세종은 대 통령실 및 국회 이전과 같은 대선 변수에 영향을 받아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기대감이 사업자들의 심리에 긍정적으로 영향



전국 5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에서 광주가 전월대비 23.6p 상승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.

연합뉴스

을 준 것으로 보인다"고 분석했다.

그러나 전국 미분양 주택재고의 76%가 비 수도권에 위치하는 등 부정적인 시장환경으로 인해 비수도권 지수는 여전히 기준치를 하회하 고있어호황으로판단하기에는어렵고주택사 업 환경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

주산연 관계자는 "6월 초 대선을 앞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주택공급 관련 법안의 입법 논의 가 지연되고 있고 향후 새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만 큼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"고 전망했다.

5월 전국자금조달지수는 전월대비 1.3p 하락 한 79.3으로 전망됐고, 자재수급 지수는 3.3p 상승한 96.2로 전망됐다. 이연수 기자

아파트 불편·부실 민원 1127건 해결 '성과'

불합리한 법령과 관리규약 등이 현실적으로 아파트단지 실정에 맞지 않아 분쟁과 갈등이 발 생하며, 이로인한 주민 불편과 애로가 많은 것 으로 조사됐다.

18일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에 따르면 지난해 '불편과 부실관리 신고센터'를 연중 운 영해 해결한 민원은 전년(1,025건)보다 102건 증가한 1,127건이다.

신고된 내용은 △동대표 선출 및 해임 방법에 따른 문제 329건(29.2%) △ 관리비 부과방법이 나 잡수입 사용 등 199건(17.7%) △관리소장 업무처리 능력 등 158건(14.0%) △선거관리위 원회 구성과 자격, 방법 등 126건(11.2%) △위 탁관리 선정 방법과 퇴직금 부당지출 등 85건 (7.5%) △시설보수 및 대형공사 민원 82건 (7.3%) △불법주차와 흡연, 층간소음, 분류수 거 등 59건(5.2%) 등이다. 이연수 기자

당첨번호	7, 9, 24, 40, 42, 44 보너스 45		
등위	당첨금액 2,203,004,452원 48,705,881원 1,560,372원		
1등			
2등			
3등			
4등	50,000원		
5등	5,000원		
	<u> </u>		

■ 연금복권/20+(263회)				
등위		당첨번호		
1등	5조	162265		
2등	1·2·3·4조	162265		
3등	각조	62265		
4등	각조	2265		
5등	각조	265		
6등	각조	65		
7등	각조	5		
보너스	각조	213377		

'지방 미분양 매입' CR리츠 2호 나온다

광양 275가구…기관투자자 참여

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(CR리츠)가 잇따라 출시된다.

국토교통부에 따르면 JB자산운용은 지난 14 일 국토부에 광양 소재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기 위한 CR리츠 영업 등록을 신청했다.

대구 수성구 미분양 아파트 288가구를 매입 하는 1호 CR리츠가 영업 등록을 마친 지 20여 일 만이다.

JB자산운용은 1호 CR리츠도 운용하고 있 기지 보증을 제공한다.

설이 시공한 광양 아파트 332가구 중 미분양된 275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.

CR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 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수익을 내는 구 조다.

정부는 올해 말까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CR리츠에 대해 취득세 중과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,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 산세 합산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.

또 CR리츠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주택

2호 CR리츠에는 기관투자자 두 곳이 출자자 분의 1 수준이다. 이번에 등록을 신청한 2호 CR리츠는 한라건 로 참여한다. 2호 CR리츠는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등록될 것으 로 전망된다. 이연수 기자

내년 오피스텔 공급 올해 1/3 수준 급감

오피스텔 공급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내년에 는 올해의 3분의 1 수준까지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특히 광주는 내년에는 입주 예정 물 량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. 부동산 시장 침체 로 인해 투자 수요가 위축된데 따른 것이다.

18일 부동산 데이터 분석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도 오피스텔 입주 예정 물량은 1만 1,994실로 집계됐다.

이는 올해의 입주 예정 물량(3만3,461실)보 도시보증공사(HUG)가 감정가의 70%까지 모 다 64.1% 줄어든 것이며 최근 10년래 가장 입 주물량이 많았던 2019년(11만211실) 대비 10

> 광주는 올해를 포함해 최근 10년간 오피스텔 공급이 지속됐으나 내년에는 입주 예정 물량이 이연수 기자

